

## 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교정성에 관한 연구

홍봉선\* · 남승규\*\* · 남미애\*\*\*

### [요약]

본 연구는 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와 비행교정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로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유형별 지지수준에 따라 교정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제공자별 지지유형이 교정성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측정은 기존의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한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척도와 교정성 척도를 가지고 One way ANOVA, 다중회귀분석을 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사법처리과정에서의 교정성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정보적 지지는 자기반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자존감 지지는 자아존중감, 범의식, 자기반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정서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제공자별 지지유형이 교정성 관련변인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 범의식, 자기반성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은 친구의 자조적 지지와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지지와 관련이 높았고 범의식은 교사의 정보적 지지와 지역사회의 자존적 지지와 관련이 높았으며 자기반성은 친척의 자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와 관련이 높게 나왔다.

주제어: 사회적 지지, 교정성, 사법처리과정, 비행청소년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대전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교수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서 론

우리나라에서 매년 소년범죄의 발생은 약 16만건이 넘으며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까지 합치면 많은 청소년과 그들 부모가 사법처리 경험을 하게 된다. 비행을 저질러 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다는 것은 청소년이나 부모에게 굉장한 위기이자 스트레스 사건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어떤 경험을 하고 이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정서적 안정과 적응은 물론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청소년의 행동이 그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처한 환경은 비행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Conklin, 1986). 이것은 곧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의 제공이 비행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게 하며 법을 지키며 건강하게 적응하도록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소년사법처리 과정에 있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의 경우 범행 동기가 단순하고 충동적이고 비행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특성인 주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쉽게 흡수한다는 점, 비행행동의 상당 부분은 기성세대에 의해 저질러진 유해환경이 중요한 원인 제공자라는 점, 비행청소년 역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하고도 지지적인 환경의 제공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소년사법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이 처한 환경의 개선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법처리과정에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비행성이 조장되는 경향이 높다는 우려도 높다. 따라서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사법처리 과정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정, 교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년사법체계의 변화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비행청소년을 선도, 보호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정복지가 확립되어야 한다. 즉 범법행위를 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과정에 처음으로 접하는 지점에서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회복지적 개입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범법행위를 한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처리과정을 거치는 동안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적법한 처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비행의 정도, 청소년의 당면문제와 욕구, 환경적 측면 등을 고려해 개별적이며 전문적인 서비스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가족, 친구, 교사, 지역사회에서의 이해와 노력도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기존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가족, 친구, 친척, 지역사회의 지지는 청소년기 동안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의 극복과 심리적 안정 및 적응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음주, 흡연 등 비행행동 등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 완화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사회적 지지가 사법처리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교정, 교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게 한다. 한마디로 비행을 저질러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들을 둘러싼 주요한 타자와 소년사법체계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느냐는 비행청소년의 교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교정복지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지금까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일부 학교나 복지관 등 관련지원체제들의 부분적인 개입에 불과하였으며 그 적

용 대상도 제한적이었다. 또한 학문적으로도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연구대상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이나 일부 보호관찰청소년이나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 등 근접하기 쉬운 특정 비행청소년에 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내용에 있어서도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의 사회적 지지를 비교한 연구나 사회적 지지가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등 심리적 안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범법행위의 발견으로 인해 공식적인 통제인 소년사법처리 과정에 있는 청소년(검·경찰과정에 있는 청소년, 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과정에 있는 청소년 모두를 포함함) 모두를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비행교정성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교정복지의 제도화를 희망하면서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실제 사회적 지지의 정도여부가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교정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만약 기여한다면 누구의 어떤 형태의 사회적 지지가 비행청소년의 교정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것은 사법처리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법처리과정을 경험하는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높은 청소년과 낮은 청소년의 교정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그 초점을 두었다. 한마디로 본 연구의 목적은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정도에 따라 비행교정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고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교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유형별 지지수준에 따라 교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제공자별 지지유형은 교정성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사법과정 초기단계부터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다 지지적인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다양한 지지체계를 연계, 발굴, 개발, 조직화하는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 지지와 비행청소년

사회적 지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실천에서 다루어져 온 개념으로써 최근 체계이론과 생태체계이론의 도입과 함께 비행청소년의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유용한 사정 및 개입도구로서 주목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단일 차원이 아닌 몇 가지 특성이 다른 요소들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진 개념이다(Colarossi, 2001). Cobb(1976)는 자신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의사소통망에 속해 있다는 정보가 사회적 지지라고 정의하였으며 Nollen(1994)는 사회적 지지를 개인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다양한 자원으로부터의 친사회적 행동이나 태도라고 정의

함으로써 긍정적인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지지란 정서적 지지는 물론 물질이나 서비스까지 포함된 상호교류라는 견해(House, 1981)도 있고 사회관계망, 주관적으로 인식된 지지, 실제 제공된 지지가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견해도 있다(Vaux, 1988; Barrera, 1986). 더 나아가 Tardy(1985)는 제각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정립을 위해 차별화되고 조직화되는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를 5가지 차원에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지지를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하는 방향성(Direction), 둘째, 지지가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실행되어진 것이냐 하는 배치(Disposition), 셋째,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인의 기술과 평가(Description/Evaluation), 넷째, 어떤 지지를 받았느냐 하는 지지의 내용(Content), 다섯째, 지지 제공자의 출처 및 특성과 관련된 사회망(Network)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크게 구조적 지지와 기능적 지지로 구분된다(Cohen & Wills, 1985; Streeter & Franklin, 1992). 구조적 지지란 개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Streeter & Franklin, 1992). 이것은 관계의 존재를 사정하는 것이지 관계의 깊이나 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주로 가족의 수, 만나는 사람의 빈도, 크기, 밀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망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사회적 지지제공자의 수가 긍정적인 결과와 어떻게 관련되느냐에 대해서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견해(Cohen & Wills, 1985)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Rook, 1984).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이란 실제로 주고받은 지지나 필요할 때 접근 가능한 지지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의 질적 특성을 의미한다(Antonucci & Akiyama, 1987; Levitt et al., 1993). 이러한 기능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사랑, 신뢰, 공감을 표현하는 정서적 지지, 자기평가와 관련된 평가적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평가적 지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개인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정보나 안내를 행하는 도구적 지지이다.

반면, Gottlieb(1978)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행동, 문제해결행동, 간접적 사적 영향, 환경적 개입의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Barrera와 Ainlay(1983)는 앞서 제시한 유형을 보다 정교화시켜 6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즉 물질적 원조, 경청과 관심 제공, 조언, 정보제공 외에도 신체적 활동으로 일을 분담하는 행동적 원조, 놀이나 휴식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연구한 김명숙(1994)은 사회적 지지를 3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표현해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과 관련된 정서적 지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자존감지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도움을 제공해주는 정보적 지지이다. 이처럼 연구자들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각기 상이하게 구분되고 있는데 이들 유형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구분한 것으로써 각 유형간의 하위구분들은 서로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을 비롯한 인간의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긍

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작용도 한다는 것이다(김인숙, 1999; 장승옥, 1996; Lincoln, 2000; Rook, 1984). 특히 청소년의 경우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요한 사람으로부터의 긍정적 지지와 함께 사회적 배척도 고려해야 한다(Lincoln, 2000; Pagano, 2000). 둘째, 사회적 지지는 발달단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체계의 역동적 성격뿐 아니라 생애과정에 따른 발달욕구, 역할,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Colarossi, 2000).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성인과 차별화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발달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지지제공자와 지지유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지지의 출처와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Barrera & Garrison-Jones, 1992; Richman et al., 1998).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의 출처와 유형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행해져야 하겠다.

청소년기는 심리사회적 발달을 위한 장단기 결과로 인해 사회네트워크 변화가 초래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자신이 감옥 혹은 다른 시설에 감금되는 것은 배우자의 사망, 이혼 다음으로 사회적응도가 높은 위기사건이다(김기태, 1993). 즉 재적응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그 사건의 내용이 그만큼 파멸적이고 심각하고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에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남기야는 신체적, 심리적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적응상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당면하게 되는 심리사회적 문제로는 첫째, 심한 스트레스 및 정서적, 신체적 부적응, 둘째, 사법처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문제, 셋째, 사회적 낙인, 박탈감 및 낮은 자아존중감, 넷째, 법률지식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다섯째, 학교생활 및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 여섯째, 사회지지의 약화 및 해체 등이 있다.

## 2)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교정성

비행청소년을 범죄인이 아닌 보호를 필요로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소년보호주의 이념에 근거한 소년사법의 최고 목표는 교정, 교화이다. 즉 비행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사회에 나아가 법을 준수하고 잘 적응해서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하고 사회재통합을 의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비행청소년의 교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요인들이 관련되느냐 하는 측면이다. 비행청소년을 교정, 교화시키는 것은 청소년의 개인적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비행청소년을 제대로 교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신의 의지와 함께 이들의 적응과 교정을 도와주는 제도적·비제도적 혹은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 사법처리과정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와 절차가 재범소년의 증가를 일으킨다는 인식과 함께 소년사법체제 개혁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Howell, 1998; Mears, 1998). 그중 범죄자의 가족과 자녀, 지역사회간에 사회지지를 통한 체계적인 개입들이 재활의 대안으로서 교정분야에서 시작되고 있다. 실제 김준호·이순래(1995)의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소년기 범죄자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의 상황이 보다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던 사람들이 성인범죄자로

발전되었으며 소년기 범행회수에는 가족환경, 친구관계, 지역사회 환경 등 주변환경의 영향의 영향이 가장 높다고 한다.

사회적 지지는 돈이나 옷,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 등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범죄자의 재적응을 돕는다(Homer, 1979). 또한 사회적 지지는 범죄자로 하여금 교도소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기의 생활에 완충역할을 하도록 한다(Iannone et al., 1984). 뿐만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자연적 사회지지체계(natural support system)의 개입은 가족체계 내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가진 범죄자가족을 지지하는 종합적인 지원망을 개발하는데 유익하다. 사회적 지지는 재범률을 낮추고 세대간 범죄발생을 막고 세금을 낮추는데 기여한다(Hairston, 1988). 따라서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사회적 지지의 존재는 퇴소시 청소년의 상황이나 치료시 문제의 심각성보다 더 나은 결과의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비행청소년이 교정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정효과의 분석은 범인성의 감퇴에 기준이 주어지며 이에 대한 측정은 우선적으로 범죄자의 재비행이라는 구체적인 행위결과가 주가 되나 교정효과의 측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재범률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도 적지 않은바, 한편으로는 범죄자의 태도와 관련된 척도들이 재범률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운호, 1991). 그 중에서도 범인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인성, 태도, 가치관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비행예측성을 측정하는 척도들은 개발, 보급되어 있으나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교정성을 사정하는 도구나 방법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비행청소년의 교정성이란 비행청소년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면서도 스스로 자기비하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분노나 좌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 법을 준수하며 건강하게 재적응하는 것이다. 이는 교정성이 하나의 요소가 아닌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개념임을 알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교정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교정성의 개념을 자아존중감, 법의식, 사회적 낙인, 사회적 박탈감, 자기반성의 하위개념으로 세분화하고자 한다.

첫째, 자아존중감이다. 자아개념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비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낮은 자아개념이 갈등을 증대시키고 개인의 비행행동의 원인이 된다(Moon, 1991: 22). 또한 비행청소년은 정상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연구도 있으며(구본용, 1992) 자아개념강화가 비행청소년의 교정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Hoffman & Quigley, 1988; Stephers, 1982). 이들에 따르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는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비행의 유혹이나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비행행동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낮은 자존감이 비행과 관련이 깊다는 것은 높은 자존감은 적응과 관련이 높다는 것을 추론하게 하고 더 나아가 높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교정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1) 비행예측을 위한 척도로는 Glueck & Glueck(1960, 1950)의 조기비행예측표, Glueck(1962)의 진성 비행소년감별표, 관택의 사회적 예측표, 김기두(1963)의 조기비행예측표, 소년원의 재비행예측표, 이병기·노성호(1994)의 소년범 재범 예측표가 있다(배임호 외, 2001).

둘째, 범의식이다. 범의식이란 법의 공정성에 대한 태도, 법적 효능감, 법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도, 위반정신 등을 포함하는 의미이다(이영란, 1989).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비행 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법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감과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사회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김준호·김은경, 1996) 특히 범의식 중에서도 특정 위반행위가 규범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즉 비행허용도가 강할수록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김준호, 1996). 이외에도 미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법관련교육(Law-Related Education: LRE)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에 따르면 법교육 이후 청소년의 비행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한다(곽금주, 2000). 이상에서 범의식의 약화는 타인에게 가해행동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덜 갖게 하고 자신의 비행을 합리화하기 쉽고 넓기야는 공격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유도하기가 쉬우며 반대로 높은 범의식은 비행감소와 밀접히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적 낙인감이다. 처벌이 얼마나 범죄억제효과가 있느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주장이 있는데 그중 낙인이론가들은 사회통제 자체가 일탈을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주위로부터 비행청소년 혹은 문제아로 한번 낙인찍히게 되면 그 이후의 행위 뿐아니라 전체 인격까지 의심을 받고 결국 늘 비행청소년으로 취급되면서 부정적인 자아를 갖게 되고 사회와 고립되면서 오히려 재범이나 심각한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처우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를 배척한 사람을 배척하여 반사회적 성향을 정형화하는 경향이 많다(김준호·이순래, 1994). 사회내 처우와 시설내 처우의 교정효과를 연구한 이성식(1997)은 시설내처우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낙인감이 더 높아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세현(2000)에 따르면 공식기관에서의 통제나 가정에서의 통제 모두 청소년에게 자존감의 실추 및 부정적인 태도를 야기시킨다고 하면서 설사 잘못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주변의 용서와 화해로 기존의 관계 속에 통합될 수 있다면 재비행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사회적 지지가 클수록 사회적 낙인감을 줄어둘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낙인감의 약화는 건강한 적응을 도울 것이다.

넷째, 사회적 박탈감(social deprivation)이다. 비행의 빈도 및 심각성은 상대적, 절대적 박탈감은 상관이 있다(심영희, 1987). 사회적 박탈감이 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환경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과 결합하여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재판과정과 절차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재판과정 및 절차가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 때 교정의 효과가 극대되고 부정적 심리의 영향이 작아진다(홍성열, 2000). 계층이나 신분에 따라 법적 적용을 차별받게 된다면 사회적 박탈감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자기반성이다. 청소년이 비행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상대 피해자를 비롯해 가족 등 주위사람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자기반성을 한 청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자신의 잘못을 바르게 알고 이를 인정하고 적당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진다는 것은 비행억제에 유용한 심리적 기제이다. 죄책감은 규칙위반 행위를 억제 혹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타적인 행위도 촉진시킨다(김경연·하영희, 2000: 116; 전신현·이성식, 1995). 또한 죄책감 수준이 도덕적 행위에 영향을 주며 도덕적 행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김경연·하영희, 2000). 실제 이윤호(1991)도 소년보호처분의 효과분석에서

자기반성을 주요한 변인으로 삼고 있다.

### 3)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

지금까지 사회적 지지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변수로서 널리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우울 감소(Barrera & Garrison-Jones, 1992; Hudson et al., 2000; Eeiring et al., 1998)와 스트레스 생활만족 및 적응(Pagano, 2000; Weigel et al., 1998)을 돕고 자아존중감을 높인다(Hudson et al., 2000; Franco & Levitt, 1998). 또한 사회적 지지는 학업 및 행동적 적응을 향상시키며(Wenz-Gross & Siperstein, 1997) 학교실패의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Richman et al., 1998)을 돕는다. 또한 위험에 처한 청소년과 가정을 지지하며 (Bowen & Chapman, 1996), 임신, 성행동 또는 성적 학대청소년(Eeiring et al., 1998; Moore & Chase-Lansdale, 2001), 청소년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비행행동(Marshall & Chassin, 2000; Zigler et al., 1992)의 감소를 돕는다. 사회적 지지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김명숙(1994), 나동식(1992), 한상철(2000), 이은주(2000), 조남규·양은규(2000) 등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교정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는 사회적 지지와 교정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행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본 연구가 이러한 분야에서 시작단계임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본 연구목적과 일치하는 선행연구의 결여로 인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지지제공자와 지지유형에 따라 청소년에게 미치는 결과,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비행과의 관련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지지와 비행청소년 교정성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제공원으로는 부모, 형제, 친척, 교사, 친구, 지역사회기관을 들 수 있는데 아들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에게 부모가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고(Eeiring et al., 1998; Colarossi, 2000) 학업성적이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며(Colarossi, 2000; 김명숙, 1994), 자아존중감이 높으며(Eeiring et al., 1998) 부적응행동이나 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은주, 1998; 김광웅·조미영, 1999). 지지적 부모는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조장하지만(Franco & Levitt, 1998)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부모의 스타인은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과 관련이 깊다(Stice et al., 1993). 또한 van Beest와 Baerveldt(1999), Weigel 등(1998)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부족한 부모의 지지는 친구의 지지로 보충은 되어도 대체되지 못할 만큼 중요한 지지제공자임을 강조하였다.

형제는 부모와의 수직적인 관계, 또래와의 수평적인 관계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으로 부모와 더불어 중요한 지지제공자이다. 청소년에게 형제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실증적 연구에서 형제의 지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형제의 지지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지지자의 관계에 영향을 받아 주도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부모 이외 조부모나 친척들도 청소년에게는 유용한 지지제공자이다. 확대가족 등 부모가 아닌 성인



가족구성원들은 대부분의 아동이나 청소년의 생활 속에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Scalés & Gibbons, 1996). 특히 부모의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 부모의 정신질환, 빈곤과 같은 다중 위험상황에서 친척 등의 지지는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와 연결되었다(Pagano, 2000).

교사는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교사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은 심리적 우울을 가장 적게 느꼈고 가족지지를 적게 받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교사의 지지가 보상의 역할을 했다(이은주, 2000). 또한 교사의 지지는 학업성취(이은주, 2000), 학교적응(이미라, 2000) 뿐만 아니라 임신 및 졸업지연의 감소, 비행이나 범죄활동 등의 감소를 보였다(McLoyd, 1990; Radke-Yarrow & Brown, 1993). 특히 교사의 지지는 우범지역에 사는 청소년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특히 부모의 지지가 약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Bowen & Chapman, 1996). 그러나 과밀학급과 교사에 대한 과도한 과업 등 열악한 학교현실들은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와의 관계를 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Galbo, 1984).

청소년에게 친구의 지지는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Colarossi, 2000; 이은주, 1998)이 높고 학업에 대한 자기확신감을 갖는다(Ousdigian, 2000). 반면 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일수록 음주, 약물, 그 밖의 비행의 개입이 높으며(이은주, 1998; 김명숙, 1994; 나동석, 1992; 김광웅·조미영, 1999) 임신한 청소년의 경우 친구의 지지가 오히려 디스트레스를 높이는 결과도 초래한다는 결과도 있다(Thompson & Peebles-Wilkins, 1992).

지역사회도 중요한 사회적 지지제공자이다. Pagano(2000)에 따르면 확대가족, 교직원 등의 성인보다 자원봉사단체의 지지가 불안정한 근린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의 안녕감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가 소수인종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기여한다는 결과도 있다(Cauce et al., 1982). 따라서 우범지역에 사는 청소년의 경우 지역사회가 위험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보호요인으로도 작용한다(Bowen & Chapman, 1996).

둘째, 사회적 지지유형, 사회적 지지제공자에 따라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학교실패의 위험에 있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를 행한 Richman 등(1998)은 다른 사람의 의사소통행동에 대한 지각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8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다양한 지지제공자(부모, 교사, 친구, 이웃)에 따른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전체적으로 학교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특정 지지제공자의 지지유형에 따라, 소속에 따라 학교적응에 따른 결과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그는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에게 친구나 교사의 지지는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지지제공자이라는 것과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임신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조사한 Giblin 등(1987)은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사회적, 실제적, 재정적, 조언, 지도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친구나 형제자매의 지지는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관련이 깊는데 실제적 지지(의료보호나 사회서비스 제공)는 태아의 보호와는 관련이 없고 산후병원 출석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학생의 학교스트레스와 적응과 사회적 지지를 연구한 Wenz-Gross와 Siperstein(1997)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우울감에 있어 친구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시켰으며 가족이 아닌 외부성인으로서의 문제해결 지지는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교사스트레스를 완화시켰다.

가출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지지를 연구한 한상철(2000)에 따르면 청소년 주변의 의미있는 타인들이 제공하는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지지 체계는 청소년들의 정신적 장애 특히 심리적 우울을 경감시키거나 최소한 우울의 증가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명숙(1994)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정보적, 자존감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부적응행동이 감소하는데 특히 자존감 지지가 아동의 부적응 예측의 주요한 변수라고 강조하였다.

청소년비행에 대한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연구한 이은주(2000)에 따르면 교사지지는 비행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친구지지는 비행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고 한다. 사회적 지지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소년과 평균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청소년들이 부모, 청소년, 교사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학교생활, 동료관계의 특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한 Rosenfeld 등(1998)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지역사회내 아동이 찾고 방과후 일하는 시간이 많고 친구수가 적고 친구로부터 덜 수용된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가족으로부터 공유되는 느낌이 적고 가족들이 학교생활에 덜 관여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이외에도 Carlo 등(1998)은 높은 부모의 지지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기질에 따라 다양한 행동적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볼 때 청소년의 문제별, 발달단계별에 따라 유용한 사회적 지지 제공자 및 유형은 매우 다르며 그 결과 역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을 비롯한 친구, 교사, 지역사회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지지유형들 특히 정보적 지지, 자존감 지지, 정서적 지지들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과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 3.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조사대상자는 현재 부산에서 사법 처리과정 중에 있는 비행청소년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법처리과정이란 검·경찰과정에서부터 보호관찰이 종결되기 직전까지를 의미한다. 조사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표집하기 위해 검·경찰에서의 조사과정에 있는 청소년, 검·경찰단계를 거친 후 분류심사원에서 보호 중인 청소년, 보호관찰기간에 있는 청소년,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 등 크게 4개 집단으로 세분화해서 표집하였다. 특히 분류심사원, 소년원에 입소한 청소년의 조사에서는 본 조사에 적합하지 않는 일부 입소자를 제외한 전입소자가 조사대상자였다.

## 2) 연구절차

조사시기는 1999년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한 달에 걸쳐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4개 집단 모두 조사대상자를 발견하고 조사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힘든 집단임에 틀림없다. 그중 분류심사원, 소년원에 입소한 청소년의 경우는 시설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개별접촉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해당기관의 양해를 얻어 일제히 조사하는 현실적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사가 실시되는 과정 중에는 외부환경에 의해 받는 장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교사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검·경찰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조사를 위해서는 동기간 중에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실에서 처분전 상담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보호관찰기간 중인 청소년의 조사는 동기간 중 보호관찰소에 직접 가서 보호관찰교육을 받으러 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5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이 된 표본수는 546명이였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교정성과 사회적 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사회적 지지척도와 교정성척도를 사용하였다.

### (1) 사회적 지지척도

우선 본 연구에서 측정한 사회적 지지척도는 1차적으로 김명숙(1994)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김명숙의 척도는 외국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들을 참고로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이 쉽게 응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본다. 그러나 김명숙의 척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첫째, 지지각척도와 지지실행척도는 비슷한 내용의 문항을 가지고 각각 분리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행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설문 문항수와 더불어 유사한 질문의 계속적인 반복으로 응답자인 비행청소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

둘째, 지지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지지실행척도와 지지제공자를 알아보기 위한 지지지각척도를 각각 분리해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의 어떤 형태의 지지유형이 청소년의 부적응과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단지 누구로부터의 어떤 지지형태가 부적응행동과 관련이 높은지에 대해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셋째, 지지제공자를 알아보기 위한 지지지각척도에서는 단지 가족, 또래, 교사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의 특성인 다양한 사회관계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행청소년의 경우 형제,

친척,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의 지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은 배제되어 있다.

넷째, 지지각척도와 지지실행척도를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 실제 행해진 지지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해 두고 있다고 본다. 실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 실제 행해진 사회적 지지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르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에 지지를 받는 청소년뿐 아니라 실제 지지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숙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지각척과 지지실행에 대한 척도를 모두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실제 어떤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청소년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지지각척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방법에 의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 실제 행해진 사회적 지지를 분리해서 파악한다는 것은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이중의 노력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명숙(1994)의 지지실행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척도에서는 크게 지지유형과 지지제공자에 대한 것으로 대별된다. 먼저 지지유형은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 정보적 지지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지지유형중 이들 유형이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편적인 유형일 뿐 아니라 특히 불안정한 심리상태 및 정서적 혼란, 자존감의 약화, 사법처리과정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의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욕구나 당면문제와 가장 밀접히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지제공자에 있어서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 교사, 지역사회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지유형의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항마다 실제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제공자가 부모, 형제, 친척, 친구, 교사, 지역사회 중 누구이며 어느 정도의 지지를 주는지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아주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수정, 보완한 척도는 타 척도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누가 어떤 형태의 사회적 지지를 행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하나의 척도내에서 실제 행해진 지지유형과 지지제공자를 함께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형태의 지지가 다른 변인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지지제공자와 지지내용을 분리해서 평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척도보다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훨씬 더 보다 입체적이고 다면적이며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즉 누구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부분에서의 교정성이 높은지를 분명히 알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비행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사회적 지지제공자를 부모, 형제, 친척, 친구, 교사, 지역사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지지제공자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비행청소년의 경우 해체가족이 많기 때문에 형제나 친척의 지지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또한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나 기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사회기관의 지지는 다른 지지제공자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 지역사회기관의 지지여부가 청소년의 교정성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서는 부모

나 교사, 친구이외에도 이러한 변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 본 척도에서는 그러한 파악이 가능 하다.

셋째, 본 척도는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척도로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해 부담스럽지 않고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조사자가 사회적 지지와 관련해 필요한 내용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교정성척도

궁극적으로 교정이란 재범을 일으키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인간이 교정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일생을 거쳐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증적 연구에서 교정을 측정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실증적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동안 재범을 하지 않았을 때 교정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연구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정예측 요인을 통해 교정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본문에서 밝혔듯이 교정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대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단 교정성을 예측하는 요인들은 조사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행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개념으로 교정성의 개념을 한정하였으며 교정성척도는 비행청소년의 교정성을 예언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자아존중감, 법의식, 사회적 낙인감, 사회적 박탈감, 자기반성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하위요인의 구성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비행행동과 관련이 높다는 결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비행청소년의 교정효과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되어 있는 변수 중 본 연구진들의 판단과 교정전문가의 자문에 근거하여 경찰에서부터 소년원까지의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교정성을 파악하는 공통적인 주요요소라고 인정되는 5가지 요인을 선택한 것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5점 척도로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가장 긍정적이고 좋은 대답에 5점을 부과하고 가장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대답에 1점을 부과하였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수정작업을 거쳐 SAS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자료는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타당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 Cronbach Alpha를 구하였다. 둘째,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교정성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수준별 교정성에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ANOVA를 행하였다. 넷째, 사회적 지지가 교정성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행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조사에는 최종 546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는데 그중 남자가 97.5%였다. 이는 사법처리과정에 있던 대상자의 대다수가 남자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비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2) 연령별 분포를 보면 18세가 2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7세(21.4%), 19세(16.1%), 16세(14.8%)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사법처리절차전 소속을 살펴보면 무직이 3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실업계(20.3%), 중학생(18.9%), 휴학생(11.0%)의 순으로 조사대상자의 약 과반수가 사법처리과정 직전에 학생이었다. 조사대상자가 속해있는 현재 사법처리과정을 조사한 결과 보호관찰소가 3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소년원(24.5%), 소년분류심사원(26.4%)의 순이었다.

### 2)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 분석을 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3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김명숙(1994)이 3가지 요인으로 분류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김명숙(1994)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자존감지지, 정서적지지, 정보적 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명숙(1994)의 연구에서는 총 23문항을 사용하였으나 본 척도에서는 지지유형별로 각각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조사대상자의 남녀비율 문제는 의도적으로 남자청소년들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소년부지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은 전수조사나 마찬가지로였으나 동기간내에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여자청소년들의 수는 남자청소년과 비교해 매우 작은 비율이었음을 밝힌다. 이것은 이 시기에만 유달리 남녀 비율의 차이가 작은 것은 아니다. 참고로 비행청소년중 보호처분비율에서 남녀의 성비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약 10% 정도이며 이는 또한 전국 총 13개 소년원 중 단 한곳만 여자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청소년백서, 2001: 495-556). 따라서 표집대상에 있어서 남녀비율 문제는 불가피하였음을 밝힌다.

<표 1> 사회적 지지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b>요인1: 자존감 지지</b>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사람들이 찬성해 준다.	0.726	0.273	0.342
나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0.702	0.339	0.339
나를 가치있는 존재로 인정해 준다.	0.672	0.269	0.288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0.625	0.344	0.230
<b>요인2: 정보적 지지</b>			
싸운 친구와 화해하고 싶을 때 도와준다.	0.348	0.719	0.324
결정 내려야 할 일이 있을 때 주위에서 도와준다.	0.487	0.614	0.345
특별한 숙제 등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준다.	0.510	0.572	0.267
일을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을 때 도와준다.	0.600	0.533	0.263
<b>요인3: 정서적 지지</b>			
어떤 비밀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0.301	0.555	0.505
화나는 일이 있을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0.308	0.234	0.740
싸우고 난 후 내 기분을 풀어준다.	0.256	0.489	0.652
기분이 좋을 때 그 기분을 함께 나눈다.	0.448	0.242	0.629
설명변량	3.299	2.552	2.359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사회적 지지유형 척도에 포함된 항목들의 Cronbach Alpha 계수는 원자료의 경우에 0.946이고, 표준자료의 경우에 0.947로 나타났다. 김명숙의 지지실행척도에서는 Cronbach alpha가 .99이었으며 검사-재검사신뢰도도 .75였는데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 사회적 지지유형 척도의 신뢰도분석 결과

제거변수	원자료		표준자료	
	rT	α	rT	α
싸운 친구와 화해하고 싶을 때 도와준다.	0.752	0.941	0.752	0.941
일을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을 때 도와준다.	0.809	0.939	0.807	0.949
결정 내려야 할 일이 있을 때 주위에서 도와준다.	0.816	0.939	0.814	0.939
특별한 숙제 등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준다.	0.748	0.941	0.747	0.942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사람들이 찬성해 준다.	0.775	0.940	0.772	0.941
나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0.785	0.940	0.781	0.940
나를 가치있는 존재로 인정해 준다.	0.735	0.942	0.733	0.942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0.689	0.943	0.683	0.944
화나는 일이 있을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0.697	0.943	0.702	0.943
싸우고 난 후 내 기분을 풀어준다.	0.763	0.941	0.767	0.941
기분이 좋을 때 그 기분을 함께 나눈다.	0.707	0.942	0.707	0.943
어떤 비밀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0.720	0.942	0.724	0.942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교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

을 한 결과, <표 3>과 같이 5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첫번째 요인은 자기반성이며,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낙인이고, 세번째 요인은 법의식이고, 네 번째 요인은 사회적 박탈감이며, 다섯 번째 요인은 자아존중감으로 명명했다.

<표 3> 교정성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b>요인1: 자기반성</b>					
앞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한다.	0.878	-0.038	0.049	0.015	0.073
내가 한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게 된다.	0.773	-0.022	0.169	0.031	0.023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기로 결심한다.	0.728	-0.064	0.059	-0.029	0.030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0.697	-0.083	0.162	0.013	0.047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0.440	-0.150	0.129	-0.104	-0.033
<b>요인2: 사회적 낙인</b>					
문제가 생길 때 타인에게 의심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0.109	0.722	0.053	0.117	0.079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다.	-0.025	0.701	0.092	0.139	0.076
사람들이 나를 비행청소년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0.099	0.673	0.013	0.028	0.027
이 일로 인해 나의 사회생활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0.089	0.670	0.041	0.193	0.062
<b>요인3: 법의식</b>					
잘 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다.	0.141	0.096	0.803	0.173	-0.055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0.170	0.060	0.671	0.192	-0.017
잡히지 않으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	0.166	0.034	0.576	0.099	0.009
<b>요인4: 사회적 박탈감</b>					
경찰이나 검찰과 관련된 문제에는 연줄과 배경이 필요하다.	-0.097	0.165	0.096	0.636	-0.071
모든 사람이 법안에 평등하지 않다.	0.004	0.100	0.143	0.605	-0.035
이 세상에서 돈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	0.019	0.120	0.153	0.579	-0.037
<b>요인5: 자아존중감</b>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	-0.008	0.107	0.055	-0.112	0.701
나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0.056	-0.036	-0.044	0.021	0.629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0.037	0.130	-0.045	-0.050	0.574
	2.703	2.049	1.580	1.285	1.256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교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교정성 척도에 포함된 항목들의 Cronbach Alpha 계수는 원자료의 경우에 0.712이고, 표준자료의 경우에 0.713으로 나타났다.



<표 4> 교정성 척도의 신뢰도분석 결과

제거변수	원자료		표준자료	
	rT	$\alpha$	rT	$\alpha$
나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0.124	0.713	0.137	0.715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	0.155	0.711	0.162	0.713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0.160	0.712	0.172	0.712
잡히지 않으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	0.360	0.693	0.366	0.693
잘 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다.	0.443	0.683	0.443	0.685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0.426	0.686	0.424	0.687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0.385	0.689	0.348	0.696
문제가 생길 때 타인에게 의심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0.325	0.696	0.281	0.701
이 일로 인해 나의 사회생활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0.338	0.694	0.293	0.700
사람들이 나를 비행청소년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0.259	0.703	0.218	0.707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	0.281	0.701	0.257	0.704
경찰이나 검찰과 관련된 문제에는 연줄과 배경이 필요하다.	0.248	0.703	0.205	0.709
이 세상에서 돈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	0.306	0.698	0.286	0.701
앞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한다.	0.351	0.695	0.401	0.689
내가 한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게 된다.	0.368	0.693	0.420	0.688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기로 결심한다.	0.274	0.701	0.320	0.697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0.315	0.697	0.370	0.692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0.116	0.715	0.155	0.713

### 3) 사회적 지지수준에 따른 교정성의 차이검증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사법처리 과정에서의 교정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유형별 사회적 지지정도를 고, 저 2수준으로 나누고 두 집단별 교정성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였다.<sup>3)</sup> 먼저 사회적 지지유형별 지지수준에 따른 교정성 관련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즉 정보적지지, 자존적지지,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자존감, 법의식, 자기반성의 평균이 높았다. 반면 정보적지지, 자존감 지지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낙인과 사회적 박탈감이 높았다. 그러나 사회적 낙인감의 경우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왔다.

3) 이것은 응답한 반응을 합산한 후에 마찬가지로 사본편차를 계산하여 상위 25%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검·경찰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고, 하위 25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검·경찰의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으로 분류한 것이다.

<표 5> 사회적 지지유형별 지지수준에 따른 교정성 요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지지정도		사회적 지지유형		
		정보적 지지	자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저	자존감	3.16(0.85)	3.16(0.85)	3.05(0.91)
	법의식	3.63(0.97)	3.63(0.97)	3.61(1.03)
	사회적 낙인	2.76(1.04)	2.76(1.04)	2.73(1.08)
	사회적 박탈감	2.57(0.99)	2.57(0.99)	2.46(0.99)
	자기반성	4.20(0.88)	4.20(0.88)	4.18(0.94)
고	자존감	3.33(0.89)	3.33(0.89)	3.38(0.84)
	법의식	3.85(1.02)	3.85(1.02)	3.79(0.98)
	사회적 낙인	2.74(1.12)	2.74(1.12)	2.81(1.16)
	사회적 박탈감	2.42(0.99)	2.42(0.99)	2.57(1.02)
	자기반성	4.62(0.51)	4.62(0.51)	4.37(0.84)
전체	자존감	3.21(0.87)	3.21(0.87)	3.19(0.89)
	법의식	3.69(0.99)	3.69(0.99)	3.69(1.01)
	사회적 낙인	2.75(1.06)	2.75(1.06)	2.77(1.12)
	사회적 박탈감	2.53(0.99)	2.53(0.99)	2.51(1.00)
	자기반성	4.31(0.82)	4.31(0.82)	4.26(0.90)

(1) 정보적 지지

정보적 지지수준에 따른 교정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보적 지지수준은 자기반성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자아존중감, 법의식, 사회적 낙인감, 사회적 박탈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6> 참고). 즉 정보적 지지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기반성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자기반성에 대한 정보적 지지유형의 일원 ANOVA 결과

Source	df	자승화	평균자승화	F	Pr > F
정보적 지지	1	13.1692	13.1692	19.75	0.0001
오차	363	241.9974	0.6666		
전체	364	255.1666			

(2) 자존적 지지

자존적 지지수준에 따른 교정성 차이를 살펴보면 결과 자존적 지지수준은 자존감, 법의식, 자기반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사회적 낙인감, 사회적 박탈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7> 참고). 즉 자존적 지지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아존중감, 법의식, 자기반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 자존감, 법의식, 자기반성에 대한 자존적 지지유형의 일원 ANOVA 결과

구 분	Source	df	자승화	평균자승화	F	Pr > F	Corrected Total
자존감	자존적 지지	1	11.72177137	11.72177137	14.14	0.0002	290
	Error	289	239.62836227	0.82916388			251.35013364
법의식	자존적 지지	1	5.38709043	5.38709043	5.68	0.0178	289
	Error	288	273.05773716	0.94811714			278.44482759
자기반성	자존적 지지	1	8.94681847	8.94681847	13.24	0.0003	291
	Error	290	195.93359249	0.67563308			204.88041096

(3) 정서적 지지

정서적 지지수준에 따른 교정성 차이를 살펴보면 결과 정서적 지지수준은 자아존중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법의식, 자기반성, 사회적 낙인감, 사회적 박탈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8> 참고). 즉 정서적 지지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존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8> 자존감에 대한 정서적 지지유형의 일원 ANOVA 결과

Source	df	자승화	평균자승화	F	Pr > F
정보적 지지	1	6.81751284	6.81751284	8.83	0.0032
오차	285	219.96220067	0.77179720		
전체	286	226.77971351			

4) 사회적 지지와 교정성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가 교정성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여 사회적 지지유형별 지지제공자에 따른 각각의 교정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9>와 같이 자아존중감, 법의식, 및 자기반성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유형별 지지제공자를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25%로 나타났고, 친구의 자존적 지지와 지역사회기관의 정서적 지지가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F_{(18, 146)} = 2.32, p < 0.01, R^2 = 0.246$ ). 그 외 다른 요인에 있어서는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친구의 자존적 지지와 지역사회기관의 정서적 지지가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법의식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유형별 지지제공자를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법의식에 대한 사회적 지지유형과 사회적 지지출처의 설명력은 20%로 나타났고, 교사의 정보적 지지와 지역사회기관의 자존적 지지가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F_{(18, 146)} = 1.78, p < 0.05, R^2 = 0.200$ ). 그러나

그 외 다른 요인에 있어서는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범의식에는 교사의 정보적 지지와 지역사회기관의 자존적 지지가 높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반성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유형별 지지제공자를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자기반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유형과 사회적 지지출처의 설명력은 21%로 나타났고, 친척의 자존적 지지와 친척의 정서적 지지가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F_{(18, 146)} = 1.88, p < 0.05, R^2 = 0.208$ ). 그러나 그 외 다른 요인에 있어서는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자기반성에 있어서는 친척의 자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9> 교정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지지제공자	자유도	b	$\beta$	표준오차	다공성허용치	t
자존감	절편	1	2.236	0.000	0.429		5.205
	자존감지지 친구	1	0.315	0.350	0.118	0.343	2.672***
범의식	정서적지지 지역사회	1	0.398	0.426	0.119	0.357	3.325***
	절편	1	3.272	0.000	0.544		6.011
자기반성	정보적지지 교사	1	0.306	0.360	0.154	0.188	1.982*
	자존감지지 교사	1	-0.368	-0.397	0.162	0.203	-2.269*
자기반성	정서적지지 지역사회	1	0.596	0.564	0.173	0.232	3.445***
	절편	1	3.488	0.000	0.387		9.011
자기반성	자존감지지 친척	1	0.246	0.382	0.094	0.285	2.599**
	정서적지지 친척	1	-0.299	-0.365	0.129	0.248	-2.322*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지한 사회지지에 따른 비행교정성을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유형별 지지수준에 따라 교정성 관련변인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지지유형별 교정성 관련요인간의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정보적 지지, 자존적 지지,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자이존중감, 범의식, 자기반성 점수가 높는데 반해 정보적지지, 자존감 지지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낙인과 사회적 박탈감이 높았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교정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사법처리 과정에서의 교정성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정보적 지지수준은 자기반성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자존적 지지수준은 자이존중감, 범의식, 자기반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정서적 지지수준은 자존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정보적 지지수준이 높은 집단이 자기반성을 더 많이 하고 자존적 지지수준이 높은 집단이 자이존중감이 높고, 범의식이 높으며 자기반성을 더 많이 하며 정서적 지지수준이 높은 집단이 자이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적 지지와 자존적 지지는 자기반성과 관련이 깊고 자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는 자이

존중감과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유형의 지지수준에 따라 비행교정성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이 매우 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회적 낙인감, 사회적 박탈감의 경우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유형 정도에 따라 사회적 낙인감과 사회적 박탈감에 차이가 없는 것은 사회적 낙인감과 사회적 박탈감이 사법처리 과정 후반부나 종결 이후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본 연구 대상자들은 상당수가 초기 사법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는 점과 특히 사법처리과정 초기에는 검·경찰에서의 처우형태들이 사회적 낙인감과 사회적 박탈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검·경찰의 지지를 주요변인으로 다루지 않은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사회적 지지제공자별 지지유형은 교정성 관련변인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에 대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교정성 관련요인 중 자존감, 법의식, 및 자기반성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제공자별 지지유형의 설명력은 25%로 나타났는데 친구의 자존적 지지와 지역사회와 정서적 지지에서만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식에 대한 사회적 지지제공자별 지지유형의 설명력은 20%로 나타났는데 그중 교사의 정보적 지지와 지역사회기관의 자존적 지지에서만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반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제공자별 지지유형의 설명력은 21%로 나타났고, 친척의 자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에서만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8개의 변수 중 2-3개의 변수만이 설명력을 지닌다는 점은 처음 설정한 분석모형에 보다 정교한 검토와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선행연구의 결여 등 시작단계의 연구에서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발견하였다는 점은 의미있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친구의 자존적 지지와 지역사회기관의 정서적 지지의 관련이 높고 법의식에는 교사의 정보적 지지와 지역사회기관의 자존적 지지의 관련이 높았다. 자기반성에 있어서는 친척의 자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누가 어떤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교정성의 결과도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친구, 친척, 교사, 지역사회의 지지가 청소년의 법의식, 자아존중감, 자기반성과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지지가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다는 것은 Pagano(2000), Bowen과 Chapman(1996)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의 경우 어떤 유형의 지지수준도 교정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는 가족의 지지가 다른 지지제공자에 비해 교정성에 미치는 중요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Pagano(2000)와 Lincoln(2000)의 주장에서처럼 오히려 범법행위를 해서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가족은 긍정적 지지의 제공은 물론 부정적 지지의 제공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상반된 기능들이 교정성과의 관련에도 작용하였다고 추측된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청소년이 비행교정성도 높았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교정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교정, 교화를 위해 사회적 지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제언하고자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비행교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처리과정 초기부터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비행청소년에 대한 대부분의 교정프로그램들이 사법처리 후반부에 가서야만 비로소 행해지고 있다. 초기 사법처리과정에서의 경험과 인식이 향후의 교화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고려해 볼 때 사법처리과정 초기부터 공식적 지지체계와 비공식적 지지체계간 연계, 협력하여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서비스 제공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초기과정인 검·경찰단계에서부터 청소년과 가족에게 상담 및 자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지지제공자에 의한 지지유형의 개발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정보적 지지, 자존감 지지, 정서적 지지 등에 따라 자아존중감, 법의식, 자기반성 등 교정성에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지지제공자에 따라서도 교정성의 차이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이처럼 누가 어떤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하느냐에 따라 교정성의 결과가 상이함을 고려해 볼 때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교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 지지 프로그램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지지제공자의 활용 및 발굴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정보적 지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법률서비스 등을 행하는 유용한 지역사회자원의 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겠다. 또한 정서적 지지와 자존감 지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는 자아존중감 향상프로그램, 분노조절프로그램, 사회기술 향상프로그램, 인지행동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비행청소년의 교정성에 친구, 친척, 교사, 지역사회기관의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행청소년들로 구성된 집단상담이나 비슷한 또래로 구성된 또래상담의 활용이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멘토프로그램 등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친척과 교사가 매우 중요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지지제공자의 발견 및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무엇보다도 비행청소년의 경우 비행으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교사와 연계, 협력한 개입이 있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사회복지가 확립되어야 하겠다.

또한 Richman 등(1998)도 주장했듯이 비행청소년의 교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에 있어서도 개별화된 접근이 시도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그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언제, 어떤 도움이, 어떻게 행해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셋째, 비행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의 지지정도에 따른 교정성 정도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이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이 아동에 비해 부모로부터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사정에서 청소년은 부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부모가 청소년의 주된 사회적 지지제공자임을 고려해 볼

때 비행청소년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은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비행청소년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성장하듯이 부모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고 자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의무화와 더불어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과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 부모를 교정의 파트너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지지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사회적 지지를 얻을 능력이나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크게 심리교육적 방법과 사회기술적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심리교육적 방법에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녕을 위해 사회적 지지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지지의 부족과 충분함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잠재적인 사회적 자원을 발견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사회기술적 방법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적 지지획득에 대한 동기를 고양시키고 더 나아가 의도적인 집단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지획득 기술을 배우고 개발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와 교정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이것은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교정성을 연구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어떤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고 교정성의 예측인자를 찾아내려고 한 점은 본 연구에서 얻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사회적 지지에 따라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교정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이나 실천현장에서 사법처리 과정 청소년의 교정성 향상을 위한 개입과 프로그램개발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유형 중의 심리적 요인만 고려하고 물질적 요인은 배제한 점, 부모 중 어머니와 아버지의 지지를 분리해서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 사회적 지지중 부정적 지지가 청소년교정성에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는 점, 여자비행청소년이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특히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에게 주어졌던 사회적 지지가 사법처리과정 종결이후 실제 지역사회 생활 속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그것이 교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 참 고 문 헌

- 강세현. 2000. 『청소년비행의 미공식적 통제와 낙인의 효과: 가정, 학교, 사법기관에서의 통제경험의 관계』,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p. 151.
- 곽금주. 2000. 『아동·청소년의 법/규범의식 교육을 위한 심리학적 연구』,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pp. 12.
- 구분용. 1992. 『비행청소년 지도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광웅·조미영. 1999. “가정의 경제적 불안, 부모의 우울,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연구』, Vol. 13,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센터.
- 김기태. 1993. 『위기개입론』, 박영사, pp. 66-67.
- 김경연·하영희. 2000. “죄책감과 청소년의 규칙위반 행위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 제18권 1호, p. 116.
- 김명숙. 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인숙. 1999.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7호, pp. 67-89.
- 김준호. 1996. “법의식과 청소년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Vol. 4, 덕성여자대학교, pp. 61-87.
- 김준호·김은경. 1996. 『법의식과 비행과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 73-121.
- 김준호·이순래. 1994. 『소년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 12-87.
- 김준호·이순래. 1995.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 91-104.
- 나동석. 1992.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통권 제10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배임호·박경일·이태연·신석환·전영복. 2001. 『교정복지론』, 양서원.
- 심영희. 1987. “상대적 박탈감과 비행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pp. 69-113.
- 이미라. 200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이성식. 1997. “사회내처우 비행소년과 시설내처우 비행소년의 재범가능성에 대한 비교 연구”, 『형사정책』, 제9호, 한국형사정책학회, pp. 193-214.
- 이영란. 1989. “법의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형사정책』, 제4호, 한국형사정책학회, pp. 265-287.
- 이운호. 1991. 『소년보호처분의 효과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 15-18.
- 이은주. 1998.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8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은주. 2000. “청소년비행에 대한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7권 제1호.
- 장승욱. 1996. “사회적 망과 사회적 지지이론: 사회복지적 개입의 방안모색”, 『계명대 사회과학논총』, 제15집, 계명대학교, pp. 293-312.
- 전신현·이성식. 1995. “규범행위에 있어서 죄책감과 수치심의 역할”, 『고려사회학 논총』, 9권 1호, p.



177.

- 조남규·양돈규. 2000.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 관련비행간의 관계", 『세명논총』, 8.
- 한상철. 2000. "가출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청소년 연구』, 통권 제32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Antonucci, T. C. & Akiyama, H. 1987. "Social networks in adult life and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convoy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42. pp.519-527.
- Barrera, M. & Garrison-Jones, C. 1992. "Family and peer social support as specific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 *Journal of abnormal Clinical Psychology*, 20(1). pp. 1-16.
- Barrera, M.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 pp. 413-445.
- Barrera, M. & Ainlay, S. L. 1983. "The structure of social support: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pp. 133-143.
- Bowen, G. L. & Chapman, M. V. 1996. "Poverty, neighborhood danger, social support, and the individual adaptation among at-risk youth in urban area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17. pp. 641-667.
- Carlo, G., Rosch, S. C., et al. 1998. "The multiplicative relations of parenting and temperament to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s in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18. pp. 266-289.
- Cauce, A. M., Felner, R. D. & Primavera, J. 1982. "Social support in highrisk adolescents: Structural components and adaptive impac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pp. 417-428.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pp. 300-314.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pp. 310-357.
- Colarossi, L. G. 2001. "Adolescent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Structure, function, and provider type", *Social work Research*, Vol. 25. pp. 233-242.
- Colarossi, L. G. 2000. "Gender difference in social support from parents, teachers, and peers: Implications for adolescent development",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Conklin, J. E. 1986. *Criminology*.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p. 257.
- Cullen F. T., Wright, J. P. & Chamlin, M. B. 1999. "Social Support and Social Reform: A Progressive Crime Control Agenda", *Crime & Delinquency*, 45(2). pp. 188-204.
- Eearing, C., Taska, L. S., et al. 1998. "Social support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adaptation to sexual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3. pp. 210-261.
- Franco, N & Levitt, M. J. 1998. "The social ecology of middle childhood: Family support, friendship quality and self esteem", *Family Relations*, Vol. 47. pp. 315-322.
- Galbo, J. 1984. "Adolescents' perception of significant adul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dolescence*. 19. pp. 951-969.
- Giblin, P. T., Poland, M. L. & Sachs, B. A. 1987.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attitude - and health behaviors of pregnant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Care*. 8. pp. 273-279.

- Gottlieb, B. H. 1978.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classification scheme of informal helping behavior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10. pp. 105-115.
- Hairston, C. 1988. "Family ties during imprisonment: Do they influence future criminal activity?" *Federal Probation*, 52.
- Hannon, G., Martin, D. & Martin, M. 1984. Incarceration in the family : Adjustment to change", *Family Therapy*, 11. pp. 253-260.
- Hoffman, D. & Quigley, 1988. "Self-concept Change and Positive Peer Culture in Adjudicated Delinquents", *Children and youth Care Quarterly*.
- Homer. 1979. "Inmate-family ties: Desirable but difficult", *Federal Probation*, 43. pp. 47-52.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ical support*. Reading, MA: Addison-Wesley.
- Howell, J. C. 1998. "NCCD's Survey of Juvenile Detention and Correctional Facilities", *Crime & Delinquency*, Vol. 44. pp. 102-114.
- Hudson, D.B., Elek, S. M. & Campbell-Grossman, C. 2000. "Depression, self-esteem,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among adolescent mothers participating in the new parents project", *Adolescence*, Vol. 35. pp. 445-466.
- Levitt, M. J., Weber, R. A. & Guacci, H. 1993. "Convoys of social support : An Intergenerational analysis", *Psychology and aging*, 8. pp. 323-326.
- Lincoln, K. D. 2000. "Social support, negative social interac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Service Reivew*, Vol. 74. pp. 231-252.
- Marshall, M. P. & Chassin, L. 2000. "Peer Influence on Adolescent Alcohol Use: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al Support and Disciplin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Vol. 4. pp. 80-89.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s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pp. 311-346.
- Mears, D. P. 1998. "Evaluation Issues Confronting Juvenile Justice Sentencing Reforms: A Case Study of Texas", *Crime & Delinquency*, Vol. 44. pp. 443-461.
- Moon, S. 1991. "A Comparative Study of Self-concept Between Korean Juvenile Delinquents and Nondelinquents", West Virginia University.
- Moore, M. R. & Chase-Lansdale, P. L. 2001. "Sexual intercourse and pregnancy among african american girls in high-poverty neighborhoods: The role of family and perceived community environment", *Journal of Marriage & Family*, Vol. 63. pp. 1146-1158.
- Nolten, P. 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Ousdigian, S. A. 2000. "Relationship of Perceived Social Support To School Adjustment for Children in Special and Regular Education Program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Pagano, M. E. 2000. "Non-parental social support and the well-being of low-income, minority youth",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western.
- Radke-Yarrow, M. & Brown, E. 1993.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in children of multiple risk famil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pp. 581-592.

- Richman, J. M., Rosenfeld, L. b., et al. 1998. "Social support for adolescents at risk of school failure", *Social Work*, Vol. 43. pp. 309-324.
- Rook, K. 1984. "The negative side of social interaction: Impct on psychologica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pp. 1097-1108.
- Rosenfeld, L. B., Richman, J. M., & Bowen, G. L. 1998. "Low social support among at-risk adolescents", *Social Work in Education*, Vol. 20. pp. 245-260.
- Scales, P. & Gibbons, J. L. 1996. "Extended family members and unrelated adults in the lives of young adolescents: A research agenda",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6. pp. 365-389.
- Stephers, R. C. 1982. "The Concept of Self in Adolescent Drug Abuse Theories", *Youch and Society*.
- Stice, E., Bareera, M. & Cgassin, L. 1993. "Relation of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to adolescents externalizing symptomatology and substance use: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curvilinear effec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1. pp. 609-629.
- Strocter, C. L. & Franklin, C. 1992. "Defining and measuring social support: Guidelines for social work practitioner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Vol. 2. pp. 81-99.
- Tardy, C. H. 1985. "Social support measure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 pp. 187-202.
- Thompson, M. S. & Peebles-Wilkins, W. 1992. "The impact of formal, informal, and societal support network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black adolescent mothers", *Social Work*, Vol. 37. pp. 322-329.
- van Beest, M. & Baerveldt, C.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om peers", *Adolescence*, Vol. 34. pp. 193-202.
- Vaux, A. 1988. *Social support: Theort, research and intervention*, New York: Praeger.
- Weigel, D. J., Devereux, P. et al., 1998.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perceptions of support and stress: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3. pp. 158-178.
- Wenz-Gross, M. & Siperstein, G. N. 1997. "Stress, scial support, and adjustment of adolescents in middle school",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17. pp. 129-152.
- Zigler, E., Taussing, C. & Black, K. 1992.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American Psychologist*, 47. pp. 997-1006.

## The Study of the Correc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by the Juvenile Delinquents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Hong, Bong-Sun (Professor of Social Welfare, Silla University)  
Nam, Seung-Kyu (Professor of Industrial Psychology, Daejeon University)  
Nam, Mi-Ahe (Professor of Social Welfare, Daeje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rrection-level associated with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juvenile delinquents.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is study used sample of 546 juvenile delinque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the beginning stage in the police and prosecution. Social support and correction were assessed with an instrument designed for this study. Juvenile delinquents completed instruments assessing the following variables: (1)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 specially social support types(estem support,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and social support providers (parents, relatives, friends, teachers, community) (2) correction scale, specially social stigma, social deprivation, self reflection, legal consciousness, self concept. The resulting scale of the instrument had good internal reliability(Cronbach's alpha=. ) and was scored so that high scores indicated a willingness to access. To examine this purpose, One 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lationship ratings of the correction factor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ir rating of the type of soci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lf reflection and esteem suppor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lf concept, legal consciousness, self reflection and emotional support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esteem. The type of support according to support providers was significant, explaining 25% of the variance in self concept scores. The significant predictor was esteem support from friends and emotional support from a community. The type of support according to support providers was significant, explaining 20% of the variance in legal consciousness scores. The significant predictor was informational support from teachers and esteem support from a community. The type of support according to support providers was significant, explaining 21% of the variance in self reflection scores. The significant predictor was esteem support and emotional one from relatives.

Key words : correction, social support, juvenile justice process, juvenile delinquents

[접수일 2002.8.26 게재확정일 2002.10.8]